

▶ 가족·아동

자폐증 유아에 대한 놀이치료 사례 연구

최 인 경* (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박사과정)

이 속 (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)

본 연구는 자폐증 진단을 받은 유아에 대한 놀이치료를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.

연구 대상 아동은 만 3세 남아로 소아정신과에서 중증 자폐증으로 진단을 받고 의뢰되었으며, 사회 정서적 능력 결여, 전반적인 의사소통장애, 특정 물건에 대한 반복적이고 상동적 행동, 언어인지 및 운동능력 취약 등의 전반적인 발달지체증후를 보였다. 놀이치료는 12회기의 부모교육과 병행하여 실시되었는데, 주 1회 50분씩 총 3년간 115회기의 개별놀이 치료를 실시하였다. 부모교육은 아동이 놀이치료를 받는 시간에 어머니에게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는데, 자폐증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정에서의 구체적인 지도방법을 교육하는 내용 및 어머니와의 안정된 애착형성을 돕기 위한 훈육기술을 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. 놀이치료과정은 크게 초기, 중기, 종결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, 놀이치료 초기(1회기~22회기)에는 치료자를 포함하여 타인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이 전혀 되지 않아 청각적 자극을 통하여 자기 외부의 세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소리나는 놀잇감과 악기를 이용하는 음악치료적 기법을 주로 사용하였다. 18회기부터는 치료사와의 자연스러운 눈 마주침, 정서 표현, 대상에 맞는 언어사용, 모방 등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. 놀이치료중기에는 자기 인식과 자기 표현을 확장해 주기 위해 발달놀이치료와 미술을 통한 놀이치료를 주로 실시하였는데, 먼저, 놀이치료 중기1단계(23~41회)에는 자율성과 독립성 표현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언어 사용이 한층 더 증가하였다. 중기1단계까지는 세로 줄과 빗살 모양이 주로 나타났고, 중기2단계(42~85회)에는 가로선과 곡선이 나타나면서 다양한 그림 도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. 중기3단계(86~101회)에는 곡선을 이용한 다양한 크기의 동그라미가 나타나면서 형태가 있는 그림이 등장 하였다. 놀이치료 중기를 지나면서 행동과 언어(노래)가 동시에 이루어졌고 글씨와 색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였으며, 낯선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누나 또는 사촌형제 등 과 같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해 지면서 과거 사건을 기억해 언어로 묘사할 수 있게 되었다. 이후 종결 진행기에는 치료자를 향한 질문과 환경 변화 여부에 대한 질문, 자신의 요구사항, 놀이의 재미 여부 등이 언어로 나타났으며, 아동은 자신의 행동 조절을 위해 자기교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.

본 사례연구는 총 3년간 115회기에 걸친 장기 놀이치료 사례연구로 종결단계에 있다. 2003년 10월 실시한 K-CARS 검사 결과는 중증자폐인 42점으로 나타난 반면에 2005년 5월에 실시했던 결과는 경계선에 가까운 31점으로 나타나 자폐완화라는 당초 치료목표가 상당부분 충족되었음을 알 수 있다. 2006년 9월 현재는 자폐수치는 이보다 더 낮아져서 소아정신과에서의 진단결과 정상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.